

# 歷史的으로 본 西歐古地圖에 나타난 韓國\*

徐 楨 哲

《目 次》	
1. 序 言	4. 제몽주의 시대의 한국지도
2. 中世에 비친 한국의 實象과 虛象	5. 결 론
3. 대항해시대와 한국지도	

## 1. 序 言

東海에 關한 佛語 表記가 日本海가 아니라 東海 또는 韓國海로 되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인연이 되어 필자는 전공과 다른 地圖學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1978年初 韓國日報에 발표한 일련의 기사는 그에 대한 一次的인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sup>1)</sup>. 그러나 돌이켜 보면 地圖에 대한 관심 자체가 國民의인 감정에서 출발하였었고 또 地圖學 관계의 논문이나 저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으며 본인 자신이 수집한 자료 자체도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現在로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미진하다는 점을 통감하지만 그동안 수집된 보충자료를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충할 필요를 느꼈고 西歐地圖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고찰을 통하여 한국의 형태, 국명표기 및 국경선 설정에 대한 통시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地圖學에 관한 연구는 몇 가지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地圖學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 들 수 있다. 주로 地勢의 高低, 江과 하천 등의 水路관계 그리고 經緯度 표시법과 投影法 등이 고찰의 대상이 된 그러한 연구는 어느 한 지역

이나 나라에 국한하여 연구할 수 있다.

古地圖에 대한 연구는 일반 地圖와는 다른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 같다. 古地圖에 있어서 대부분 상당한 오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오류는 그것이 당시 그 지역국가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인식과 지식의 오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한반도가 섬으로 표시된 古地圖들은 지도를 제작한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사회가 한국에 대해 지녔던 지식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 아울러 그들이 입수한 정보가 부정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年代의인 고찰에서 한반도 윤곽의 변형이 한국에 대한 지식의 향상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또 한국과의 관계 내지는 한국에 대한 정보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地圖學은 歷史的인 연구와 不可分の 關係에 있다. 大食國商人들이 高麗時代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정기적으로 찾아와 交易할 정도로 왕래가 있었는데 어째서 아랍商船들을 쫓아내고 동남아시아의 商權을 쥐었던 포르투갈이나 화란의 상선들은 우리나라에 오지 않으면서 제주도를 도적섬 “Ilas des Ladrones”라고 지도에 기록했던가? 어째서 아랍系의 대표적 지리학자 Al-Idrisi는 신라를 六개의 섬으로 구성되었다고 묘사하였던가? 이러한 문제들은

\* 本 論文은 1979年度 峨山財團 연구비에 의한 결과 보고서임.

1) 한국일보 78, 1~4.

모두 地圖學과 역사의 관계를 이어놓는 문제들이다.

한국에 대한 古地圖은 한국에서 제작된 것과 외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한국에서 제작된 것은 우리가 만든 우리 자신의 이미지가겠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제작된 古地圖은 국외에서 조명한 조감도인데 그에 대한 연구는 국사의 종합적인 조명에 불가결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古地圖의 연구가 地圖學 자체에 그친다든가 역사적인 면에서 과거에만 관계된다면 그 의의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환언하면 현재의 地理學的인 상황에 조명을 주면서 아울러 어느 특정 문제, 예컨대 영토문제를 둘러싼 어떤 분쟁에 어떤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그 가치가 더 한층 확고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답변이 곧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地圖 자체가 法的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을지 모르니 어떤 설득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와 같은 상대적으로 약소국가의 경우 우리에게 옛 강토를 돌려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가치와 권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古地圖은 일본과의 쟁점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간도 문제의 역사적 이해와 인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자료인 것이다. 이리하여 古地圖에 관한 연구는 地圖學的인 의의는 물론이거니와 歷史的 의의, 그리고 現在의 政治地理的 狀況과의 관계 등 세 가지 면에서 연구의 對象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地圖製作이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바, 특히 西歐地圖에 나타난 한국의 형태와 한국 명칭의 변천 그리고 영토문제에 그 중점을 두고자 한다. 자료면에 있어서 주로 유럽에서 출판된 古地圖과 地圖學 관계 참고서적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부기한다. 日本쪽 자료는 직접 참고하지 못하고 우리가 참고로 한 국내 地圖學 관계 논문·저서를 통하여 간접으로 참고한 셈이다. 事實上 日本의 地圖學 수준은 가히 歐·美에 비하여 조금도 손

색이 없는 높은 수준임을 짐작케 한다<sup>2)</sup>. 그러나, 한국과 일본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일본 자료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객관적 사항을 찾기도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 여하튼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일본자료를 직접 대하지 못한 대신 英·佛·獨·和 등에서 출판된 자료에 의거하였고 古地圖은 직접 수집한 것과 외국의 좋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회귀지도들을 이용하였다.

한국관계 외국 古地圖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선행하여야 할 사항은 時代區分의 문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관계 古地圖에 있어서 다른 국가나 지역에 대한 古地圖의 시대구분을 따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선 三期로 구분하여 보았다.

제 1 期은 중세기~16세기 중반

제 2 期은 16세기말~17세기말

제 3 期은 18세기초~19세기초

19세기 중반부터는 古地圖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제 1기의 지도에서는 한국이 정식으로 거론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 나름대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제 2기에서는 대항해기 이후 한국을 실제 탐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의 명칭과 형태가 부정확하게나마 지도상에 나타나고 있는 시기이며, 제 3기는 한국의 古地圖을 참고로 하면서 실제 실측한 지도들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시대구분의 명칭은 일반적인 시대구분의 통념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제 1기를 中世, 제 2기를 대항해시대, 제 3기를 계몽주의 시대로 명명하여 고찰하였다.

## 2. 中世에 비친 한국의 實像과 虛像

옛날 東洋文明과 西洋文明을 대표하던 中國이나 로마제국은 자기나라가 세계의 中心이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실사 어떤 독자적인 文化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주변국가라고 보았

2) 日本은 중국제통의 한문화권 특유의 지리학적 방법과 아울러 화란의 학문, 이른바 蘭學을 합하여 독자적인 지리학, 지도학의 전통을 확립하였다.

다. 오늘날도 나라마다 자기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나라를 세계지도의 한복판에 그리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에서 우리나라도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한 나라의 크기가 그 나라의 세력이나 위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이면서 정신적으로 또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인 중심이 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제되는 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았는가, 한국이 서양지도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문제는 그와는 전연 다른 성질의 것이다. 한 마디로 세계를 이끌고 있는 西歐에서 우리를 부르는 「極東의 은둔자의 나라」라는 별호를 음미해 보면 西歐에서 보는 우리의 위치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극동이란 그들 西歐諸國에서부터 가장 멀리 멀어졌다는 공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은둔자의 나라」라는 명칭은 時間적으로 西洋世界가 가장 늦게 알게 된 나라임을 의미한다<sup>3)</sup>.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우리나라가 나오고 또 大食國商人들이 高麗時代에 무역을 하였고 또 處容歌에 나오는 처용아비가 회회인 아라비아인임을 주장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랍세계와의 관계를 상기하게 되지만 사실상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한국이라고 추정되는 Kaoli 즉 고려라는 나라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 있었을 따름이다<sup>4)</sup>.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한국이 외국지도와 지리

서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을 따져 본다면 신라에 의해서이다. 아랍 문헌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언급을 정리한 김 정위 교수의 논문<sup>5)</sup>에 의하면 中世의 이슬람 문헌에 나타나는 한국에 관한 언급은 현재 모두 17 가지로 밝혀졌는데<sup>6)</sup>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며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는 중국의 동쪽에 위치하는 나라로서 둘째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물 좋고 공기가 맑아 그 곳에 간 사람들은 정착하여 살기를 원하고, 셋째 그 곳에서는 금이 많이 생산되어 日常生活에서도 금이 사용되며, 넷째 인종적으로는 노아의 손자 Amur의 후손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다. 다섯째 지형은 여섯 개 정도의 섬으로 구성되고 중국해(bahr al-sin)는 新羅國에서 끝난다고 하고 있다.

신라왕조가 935년에 끝나는데도 그 후까지 대부분의 저자들이 국명을 신라로 기입하는 것은 그들 저자들이 직접 신라에 여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 선배의 저서들을 종합하여 기록하였다고 추측이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모두가 신라를 섬이라고 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을 한층 더 깊이 파고 들어 갈 자료가 마땅한 것이 없는 형편이다. 前記한 저서들이 어떤 문헌을 참조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또 우리나라의 문헌에도 그들과의 교역이나 교류에 대한 언급이 적어도 신라시대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라가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

3) 한국이 西歐世界에 최초로 알려진 것은 Piano Carpini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동양을 찾아 왔던 Rubruk 수도사에 의해서이다. 교황 Innocentius의 명을 받고 元나라 수도에 온 Rubruk는 한국의 존재를 처음으로 西歐에 전했다. 세 번째로 동방을 찾은 것이 Marco Polo이다(1266). 그들 세 사람은 직접 지도를 만들지는 않았으나 자세한 여정을 그린 여행기들을 남겼고 특히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는 東洋諸國에 관한 地圖 제작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4) 마르코·폴로, 동방견문록, p. 256.

5) 김 정위, 1977, 중세 이슬람 문헌에 비친 한국상, 국제경제연구원

6) 上同 p. 13~29. 그중 중요한 기록만 주려 본다면,

① Ibn Khurdadbih “諸道路 및 諸王國 案內書”(846).

② Sulaiman al-tajir “中國과 인도에의 안내서”(851).

③ Masudi (?~957) 世界歷史書 “황금초원과 보석광” 및 地理書 “학습과 개관”

④ Al Idrisi 地理書 “넌 나라를 종합할 꿈을 가진 자들의 산보”(1154).

⑤ Zakariya Qazwini (1208~1283) “창조의 경이와 존재의 희귀성”, “諸國이 남긴 자취”

⑥ Rashid al-Din (1247~1318) “綜合史”

⑦ Damash Ri (1327) “대륙과 해양의 경이”

⑧ Abul Pida (1273~1331) 地理書 “諸國案內”

다고 한 것은 그 후에 한반도를 섬으로 그린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왕실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다면 공식적인 기록을 남겼을 터인데 그렇지 않다는 점, 둘째는 교류가 육지를 통하지 않고 해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는 교류가 어느 특정 섬에서만 이루어짐으로써 신라가 섬이라는 단정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9세기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신라의 해상활동이 활발하던 시기로서 청해진을 관장하던 장 보고는 民兵양성에 의하여 신라백성을 노예로 잡아다 파는 唐과 일본의 해적을 제압하였을 뿐 아니라 민간무역을 진흥시켜 경제적으로 국가에 기여하였고 또 경제력에 비례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큰 인물이다<sup>7)</sup>.

아랍 문헌에 나오는 신라에 대한 記述은 장보고 시대의 청해진의 현실과 여러 가지 일치를 보이고 있다. 人情이나 기후 또는 자연에 대한 묘사가 그 당시의 현실에 부합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금의 생산과 일상생활에서까지 금을 사용하였다는 언급은 당시 상류층의 사치풍조와 특히 佛事에서의 금으로 만든 굵기사용이 너무 도가 지나쳐 애장왕 7년에 금은제품의 사용을 금하였다는 기록<sup>8)</sup>에 비추어 보아도 역사적 현실과 부합한다. 또한 청해진의 전성기에 중앙집권 제도의 약화와 함께 외국과의 상업이 번창하였던 唐代에 中國 남해안에 페르시아인들과 아랍인들이 常住하면서 中國과 日本은 물론 신라와도 교역하였으며 청해진은 三角무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장보고가 事實上으로 “商人君主” 역할을 하였다는 라이샤워의 지적은 아랍문헌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sup>9)</sup>.

청해진이 오늘날의 완도에 해당한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뚜렷한 사실이기 때문에 재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고 현재 발굴되고 있는 유물

들도 그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서 청해진 지역의 섬들이 신라의 전부라고 믿어질 정도로 되었는데 하는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단지 아랍어와 당시의 한국어간의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 이외에는 장보고의 개인적인 활약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큰 역할을 하였겠으나 지리적인 위치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신라가 망하고 나서는 청해진이 완전히 쇠망하면서 중계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잃었으나 전성기의 청해진이 흥성하게 된 것은 중국 등주, 명주에서 흑산도, 남해안을 거쳐 일본 구주지방으로 이어지는 무역항로의 중심지였었고 장보고 이후에는 한편으로는 중국·일본간의 교역이 직접 이루어진 반면 아랍상인까지 포함한 중국·한국의 무역 거점이 고려시대에는 보다 북쪽으로 예성강쪽으로 올라 갔다.

고려시대에도 이른 바 大食國商人들의 商船이 정기적으로 찾아 왔으나 그들의 내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 지리의 변화는 새로운 사실을 아랍세계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고려시대(935~1392)에 쓰여진 아랍 문헌에도 한국이 신라로 나오고 단 한 번 라쉬드·알딘(Rashid al-Din, 1247~1318)<sup>10)</sup>이 Kaoli(고려) 일명 Kaukauli(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해 몽고의 元王朝의 관계를 설명할 뿐이고 그나마 地圖上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다.

그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Sila가 망한 후에도 아랍쪽 문헌은 앞서 문헌들을 반복하는 데 그쳤고, 둘째는 간혹 Rashid al-Din처럼 고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신라와 고려가 같은 나라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한국의 언어·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였고, 셋째 아랍인들 자신도 15세기말부터는 새로운 해양세력으로 등장한 포르투갈에 밀려 동남아로부터 물러나게 되므로서 한국과는 더 한층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었다<sup>11)</sup>.

7) 朴斗圭, 1979, 창작과 비평, 79년 여름호.

8) 삼국사기 I, 신라본기 p. 167. (동서문화사)

9) 라이샤워 페어뱅크, 1964. 동양문화사 I, 을유문화사, p. 531.

10) 김정위, 상계서, p. 22.

11) 한국과 아랍간의 역사적 관계에 관하여서는 최상수 교수의 저서가 있음.

### 3. 대항해시대와 한국지도

1488년 Diaz의 희망봉 발견과 함께 Vascoda Gama가 1498년 인도에 도착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태리를 밀치고 地中海의 패권과 함께 상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 못한 小國 포르투갈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지중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동양제국으로 통하는 항로를 발견하는 길뿐이었다. 그리하여 항해왕 엔리케가 즉위한 후 당시로서는 가능한 조선기술을 동원하여 갑판이 4이나 있는 대법선을 개발하여 최신형 대포로 무장하고 동남아시아를 향하여 전진하였던 것이다.

포르투갈의 목표는 그 때까지 아랍상인들이 독점하던 후추등의 향신료를 동남아제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아랍상인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무력과 기동력에서의 우위로 그들은 유럽의 對아시아 무역을 대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리던 아랍상인과 상선들을 제압하였다. 그리하여 人口 150만의 조그만 국가가 1억 인구의 중국과 2000만 인구의 일본과의 무역 그리고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 향신료 무역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포르투갈이 한국과도 교역을 하였다면 한국은 경제, 문화, 종교적인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지만 역설적으로 포르투갈의 동남아 진출과 함께 한국은 중국, 일본 이외의 세계 즉 아랍상인들을 통하여 接하던 外部세계와의 교섭마저 끊기게 되었다.

西洋세력으로서 처음으로 동남아에 온 포르투갈의 선박항해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항해도 Portulano를 만들었다. 그 항해도들은 대부분 판각에 의하지 않고 손으로 그린 것들이고 도 상업용으로 출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해도가 다른 나라에 넘겨질 경우 해상 우위가 흔들릴 우려가 많다고 판단되어 일체 그것을 비밀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현존하는 Portulano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면서도 지도상의 제약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가 부진할 수 밖에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포르투갈이 한국에 대해

별로 큰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고 별다른 접촉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본다면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포르투갈의 중요 관심사가 향신료의 무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지는 몰루카(Molucca) 군도라고 불리던 一名 향신섬("Spice Islands")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지 않은 한국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

둘째, 포르투갈의 무역이나 해외 식민지 획득에는 교황청의 승인이 필요하였던 바 남미를 정복한 스페인이 동남아시아도 자기들 판도에 넣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물리치기 위하여 그들은 동양진출에 선교목적<sup>을</sup> 추가하여 언제나 선교사들을 동반하였던 바 인구면에서 일본의 4분지 일, 중국의 20분지 1에도 미치지 못하던 한국이 커다란 관심을 끌지는 못했을 것이다.

셋째, 한국과의 직접 교역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사회의 폐쇄성과 함께 한국의 외국무역을 대마도가 대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무역면에서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므로 한국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꼭 추구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포르투갈 해도 및 지도의 영향을 받은 지도에 한국 내지 오늘날의 제주도에 해당하는 섬을 그려 넣고 "도적섬"(Ilas dos Ladrones)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그러한 표기는 16세기말에서 17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대표적인 지도에 속하는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이유를 밝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를 아직 알 수 없다. 다행히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지도에서 제주도는 Fongma로 표기되었다가 후에 Quelpert라는 명칭으로 바뀌는데 그러한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아직은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적섬이라는 표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첫째로 제주도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일본으로 향하는 포르투갈의 배들이 몇 차례 근처 해적들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 그 해적들의 무력이 상당하고 또 조직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시 한국의 형편으로 보아 그러한 조직적인 해적이 제주도나 남해안에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셋째 도적섬이 꼭 제주도나 남해안의 어느 섬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마도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 남쪽의 섬으로 도적섬 하나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섬을 가리킨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넷째 고려사를 보면 대략 135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서해안은 왜구에 의하여 계속 심한 노략질을 당해서 고려말에는 그러한 왜구를 격파하는 데 큰 힘을 기울여야 했으며 새로 건국된 명나라도 왜구의 침략에 시달리다 못해 해안봉쇄령을 내려 주민들이 해안에 흩어져 살지 못하도록 했음을 보아도<sup>12)</sup> 도적섬의 명칭은 당시의 한국과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특히 포르투갈 상선이 1543년 일본에 鐵砲를 전한 이래 중앙정부가 쇠약할 때마다 일본해적이 해외에까지 진출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러한 명칭이 일본 해적집단 때문에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 당시의 실정으로 보아 강력한 무력집단이 해상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sup>13)</sup>.

해양국가로서 포르투갈의 위치는 1580년 엔리케왕이 서거한 후 스페인왕이 그 왕위를 계승하여 포르투갈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580~1640년에 이르는 기간에 포르투갈은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또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후에는 이미 화란, 영국, 불란서 등이 동양무역에 뛰어든 후였기 때문에 이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서양국가들의 동양진출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것은 바로 포르투갈인들이었고 그들 밑에서 여러 해 동안 수련을 쌓은 사람들이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업적인 지도 출판관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서구의 지도학자와 출

판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동양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은 포르투갈 항해가들과 일부 스페인 항해가들이었다.

한국의 명칭이 처음 나타나는 지도에 대해서 지도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여서 洪始煥 教授는 1594년 Plancio의 지도에 처음으로 Corea라는 표기가 나타난다고 하였고<sup>14)</sup> Bricker는 이태리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리치의 1602년에 북경에서 만든 “坤輿萬國全圖”에 한국이 반도로 나타나기 29년전 즉 1573년에 만든 Hondius의 世界地圖에 이미 한국이 반도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5)</sup>.

필자의 조사로는 서구 지도상에서 한국으로 추정되는 첫 지도는 현재 피렌체 과학사박물관에 소장된 Lopo Homem의 1554년 지도이고, 한국명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1568년에 제작되어 현재 마드리드의 Alba 家에 보관된 Dou-Rado의 지도이다. 이 지도에서 한국은 Conray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Couray로 표기한다는 것이 잘못되어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은 당시의 다른 古地圖와의 비교에서 확인하였다.

어느 지도에 더 일찍 한국이 나타나 있는나 하는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찌서 한국이 일부 지도에서 부정확하게 나타나며 한국의 명칭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이 시기에 지도상에서 확정되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다.

한국은 對外的인 폐쇄성과 국가적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또 地理的인 위치 때문에 西洋世界에 늦게 알려졌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으나, 그 밖에도 西洋世界가 東洋으로 진출한 후에도 서양지리학이 Ptolemaios 以來의 동양에 대한 추상적인 파악으로 만족하였고 또 한국으로부터 東北 캄차카와 베링해협에 이르는 지역이 가장 늦게 탐사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16세기말 Ortelius와 Jode의 지도에서도 한국이 표

12) 라이샤워 페어뱅크, 1964. 동양문화사, p. 418.

13) 포르투갈語의 도적섬 “Yuote de li ladroni”이란 명칭은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로서 쓰였다. Magellan은 1521년 3월에 태평양상에서 저의 아사지경에 이르러 어느 섬에 상륙하여 과일과 야채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으나 주민들이 Magellan의 배를 약탈하였기 때문에 그 배의 항해일지 기록사가 그 섬을 도적섬이라고 불렀다. 당시 Magellan은 스페인 정부를 위하여 세계일주를 하는 중이었다. cf. Landmarks of Mapmaking p. 117.

14) 洪始煥, 1976. 지도의 역사, 전파문화사, p. 211.

15) Landmarks of Mapmaking p. 129, T. Y. Crowell Co., 1968.

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東洋을 왕래하던 무역선들은 독자적인 地圖를 작성하여 그것을 가지고 항해하였던 바 Portolano를 비롯하여 손으로 그린 지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다. 예를 들면 東洋과 南北美를 합한 “Descricion de las Yndias Occidentalis” (1601)는 1575년에 만들어진 손으로 그린 지도를 옮겼다는 주석이 달린 지도인데<sup>16)</sup> 그 지도에는 이상스럽게도 한국에 “Cory”라는 표기가 달려 있다. 단순한 표기상의 실수라고 하면서 지나칠 수도 있으나 음미해 볼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대체로 한국의 표기는 스페인 포르투갈쪽에서 고려를 alphabet으로 옮겨 Corea라고 표기되었는데 프랑스는 Corée라고 하였고 일부에서는 Caoli라는 中國式 異名을 병기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고려를 나타내는 Cacoli라는 명칭을 병기하고 있으며 간혹 朝鮮의 中國語式 혹은 日語式 음역인 Tiauxen, Tiocen이라는 명칭도 병기되고 있다. 그러다가 Corea, Corée로 통일된 것은 일단 혼돈을 피하기 위한 일관성있는 명칭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며 후에 英語계통에서의 Corea의 C가 K로 바뀌어 Korea로 된 것은 19세기 후반 부터인데 그 이유는 필자의 추측에 의하면 [k]음을 나타내는 文字가 라틴어계통에서는 C이고 英獨계통에서는 K이기 때문인 것 같다. 여하튼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가 西洋에 알려진 것이 이미 주지된 바와 같이 고려때라는 사실이다. 결국 한국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Caoli라고 하는 中國式 음을 병기하면서도 정식명칭으로서는 Caoli가 아니라 Corea, Corée가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 앞서 언급한 Herrera의 지도에서 Cory가 된 것은 스페인어식 표기가 아니고 아랍어식 발음을 택한 것이다<sup>17)</sup>. 결국 아랍어식의 Cory는 17세기 일부 지도에서도 나타나지만 오늘날의 Korea는 아랍식도 아니고 中國式 발음도 아닌 일본식 발음 Corai에서 왔다. 그것이 일부 지도에서 Couray 또는 잘못 옮겨써서 Conray가 되었지만 서양어로 Corai<sup>18)</sup>

로 표기되었고 불어로는 중모음 기피현상에 의하여 중모음 “ai”가 단모음 “e”로 변하는 음운 규칙에 의하여 Coré가 되면서 女性形 명사로 되어 여성형 어미 “e”가 첨가되어 Corée가 되었고, 스페인 및 이탈리아어에서는 불어의 성을 따라 여성이 되면서 여성형 어미 “a”를 택하여 Corea가 되고, 영어로는 불어의 “e”가 “a”로 되는 규칙에 의하여 Corea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표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변천은 장차 더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형태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西洋지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16세기말 경에서부터 한국의 모습이 매우 근사하게 확정되는 1734년의 D'Anville의 韓國(Royaume de Corée)가 나오기까지의 기간동안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일부 지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도가 한국을 섬으로 표시하고 있고 한 걸음 나아가 섬(Insulae)라는 註記가 있을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에는 고구마처럼 긴 섬으로 나타났다가 사다리꼴 비슷한 형태 그리고 둥근 형태의 섬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1595년 Linschoten의 여행안내지도 “Itinerario”를 들 수 있다. 1602년 Mateo Ricci의 중국어판 세계지도에 한국이 부정확하게나마 반도로 그려진 것이 서양에 전해진 후에 이태리 예수회신부 Martini가 1655년판 Blaeu의 新中國지도첩에 中國, 일본과 함께 길쭉한 한반도를 그려 넣었고 그 후에는 대체적으로 반도로 그려져 있다.

거의 모든 지도들이 한국에 관한 정보를 직접 얻어 그린 것이 아닌 만큼 D'Anville 이전의 지도에서 한국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는 없다. 한 가지 지적하여야 할 사실은 한국의 형태가 부정확하게 된 이유가 중국에서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아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한국에서 만든 일부 지도가 그러한 오류를 유발시킨 경우도 있다고 하는 점이다. 환연하면 한국에 관한 서양지도는 대개 중국에서 만든 지도를 참조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작된 지도의 참조과정에서 오류가 빚어졌다고 보는 것이 지

16) Bricker, p. 116.

17) 오늘까지도 아랍에서는 한국을 Cory 혹은 Kory라고 부르고 있다.

18) William & Jan Blaeu의 1634년 지도.

도학계의 통념으로 되어 있다. 盧禎植 教授도 “韓半島를 섬으로 나타낸 西洋學者의 과오는 中村拓氏の 견해를 따라 “古今形勝地圖”(1555)나 皇明輿地之圖(初版 1531, 再版 1536) 등 東洋地圖에 根據한 데 基因된 것”<sup>19)</sup>이라고 하였던 바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먼저 중국의 지도 제작자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지도를 참고로 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또 그들의 오류도 한국에서 제작되었거나 묘사된 일부 지도를 참고하였음이 분명하다. 李燦 編의 “한국고지도”에서 볼 수 있는 著者年代未詳의 東國地圖(숙종연간으로 추정)<sup>20)</sup>와 그 밖에 여러 지도에서 굵게 그려진 압록강, 두만강이 백두산 근처에서 거의 맞붙은 형상은 흡사 한국을 만주대륙 바로 밑의 섬으로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는 동국여지승람의 八道總圖(1481)에서도 한반도가 함경도와 평안도가 같은 수준에 위치해 있고 백두산을 제외하고는 두만강과 압록강이 거의 연결되어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로 中國과 한국을 합한 天地圖와 天下圖에서 우리나라는 이름만 朝鮮으로 표기되어 있고 지도가 그려져 있지 않으니 일부 西洋地圖에 한반도가 빠진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D’Anville 以前の 지도로서 한반도의 가장 부정확한 모습을 보여 주면서 그 출처가 확실치 않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는 지도를 든다면 Linschoten 이 1595년에 출판한 “인도以東地域圖”를 들 수 있겠다. 그 지도는 “Itinerario”(里程表)라는 東方여행안내서에 수록되었다<sup>21)</sup>.

Linschoten 은 단순한 출판업자가 아니라, 포르투갈商人 밑에서 10년간 동남아 무역에 종사하였으며 Fairbank 와 Reischauer 에 의하면<sup>22)</sup> 5년동안 인도의 Goa 에서 살면서 향료무역과 동

남아항로에 정통하였고<sup>23)</sup> 동남아에 대한 지도 및 해도를 수집하여 Langeren 으로 하여금 판각하게 하였다. 그가 동남아의 향료무역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화란은 1601년에는 당시 향료무역을 좌우하던 포르투갈의 3배에 달하는 65척의 무역선을 당시 향료제도라고 불리우던 몰루카諸島(현 인도네시아 지역)에 파견하였고 그가 지도 제작, 출판을 한 것은 화란 무역선들의 항해를 위해서였다. 그는 무역과 지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남아지도 중에서 한국을 둥근 섬 형태로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명칭도 Ilha de Corea 라고 하고 그 밑에 또 Corea 라는 섬을 그려 넣었으니 납득하기 힘들다. 만주와 섬으로 된 한국 사이에는 위화도를 나타내는 섬인지 섬 하나를 그려 넣었고, 도적섬이라는 포르투갈어 표시가 있고 또 Costa de Conray 라는 명칭을 남쪽 연안에 붙였다. 그 명칭은 앞서 지적한 바대로 Dourado 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또 일본지도의 형태는 Dourado 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새우형태로 그려진 일본지도의 형태나 위치, 방향으로 보아 일본에서 얻은 자료<sup>24)</sup>에 의한 것인지 필자로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추정으로는 지도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실제 비율보다 크게 그려 한반도 위치에 놓았고 그 밑에 보이는 조그마한 섬은 제주도에서 멀지 않은 섬을 이름을 모르고 한국섬이라는 것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Corea 라고 한 것 같다.

화란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특히 동해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Hamel 의 표류기(1668)는 한국에서 외국인을 노예로 삼는다는 데 대해 큰 공포심을 불러 넣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란의 동인도척식회사는 경제적인

19) 盧禎植, 1971. “西洋지도에 나타난 한민도의 윤곽 변천에 관한 연구,” 대구교대논문집.

20) 李燦 編, 1972, 韓國古地圖, 한국도서관연구회, p. 64.

21) 지도의 실제 제작자는 H. Van Langeren 이며 동인도척식회사의 지도제작자였던 Plancius 가 제공하였고 그 지도는 평생을 인도에서 보낸 지도학자 Dourado 의 1568년 지도에 크게 의존. 따라서 제작자에 대한 혼돈이 많이 일어난다.

22) 페어뱅크, 라이샤워, 크레이그 共著, 東洋文化史(下), p. 28.

23) Bricker 에 의하면 인도에서 7년 살았다.

24) 洪始煥 教授는 이 지도가 일본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지도의 역사, 전파과학사, p. 215.



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게 되었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무역거래를 트려고 하였으나 당시 히라도(平戸)에 파견된 동인도척식회사 일본지사장이 그렇게 될 경우 한국과의 무역을 대행하던 대마도주 및 그를 후원하는 일본 군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본사에 부정적인 회답을 보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 화란은 동해가 西歐와 직결되는 바다라고 확신하여 인도네시아 주재의 총독 De Vries 를 파견하여 西양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북해도 지방을 통하여 동해를 탐사하려 하였으나 동해로 통하는 통로를 찾지 못하여 탐사작업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그 작업을 성사시킨 것은 1세기 후 1787년 프랑스의 Laperouse 였었다. Linschoten 의 지도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동쪽을 지도의 윗쪽에 위치하게 하였다는 점인데 그것이 中世의 종교전제시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보편적인 것같으나<sup>25)</sup> 실인즉 인도에서는 태양이 뜨는 동방을 제일 상단에 두는 힌두교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sup>26)</sup> 인도와 Linschoten 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 점에 대한 해명이 용이할 것이다.

18세기 以前의 한국에 관한 지도로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띠는 지도를 든다면 Martino Martini 가 1655년에 발간한 中國지도첩(Atlas Sinesis) 속에 들어 있는 한국과 한국 주변국가에 대한 지도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Martino 는 중국에 체재한 예수회 신부로서 현지에서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후 지도화하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개선된 한반도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었다.

Blaeu 의 1655년 지도는 한국을 반도로 표시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Mateo Ricci 를 비롯한 서양선교사들의 지도를 참고한 인상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인도 및 인도네시아 및 일본에서 보낸 참고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지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바타비아 주재 화란총독 De Vries 가 직접 탐험대를

이끌고 18세기 후반까지도 미지의 부분이었던 일본 북부와 동해에 대한 탐색을 벌렸던 바 그 탐색이 전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하였지만<sup>27)</sup> 그 결과를 부분적으로나마 참고로 한 지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지도이다.

#### 4. 계몽주의 시대의 한국지도

지도제작에 있어서 17세기가 화란의 전성기라고 한다면 18세기는 프랑스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다. 18세기 들어서 프랑스의 지도학의 발달은 국력의 신장과 함께 식민지를 개척하고 무역을 진흥하려고 하는 국가정책의 도움에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계몽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프랑스 과학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지도학적으로는 단적으로 말하여 18세기초에서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관한 한 D'Anville 의 지도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도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리학자겸 지도학자로서 D'Anville (1697~1782)의 공로는 절대적이다. 그는 未知의 지역에 대한 지도에서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공상적인 요소, 예컨대 상상에 의한 동물, 자연의 회화적 표현들을 축출하고 모르는 부분은 백지로 남겨두므로서 지도제작에 있어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15살 때 처음으로 고대 회람지도를 발간하기도 하였고 당시의 가장 중요한 지도 수집가로서 古地圖와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지도 수집가로서 10,000장에 달하는 그의 지도는 말년에 루이 16세가 모두 구입하여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도학적인 업적은 첫째 Sanson, De L'Isle 등의 대표적인 지도학자들의

25) 洪始煥, 상계서, p. 213.

26) 外大 힌디어과 김하우 교수와의 대담.

27) Bricker 에 의하면 日本人 자신들도 일본 북부의 섬들에 대한 지리지식을 갖지 못하였다. cf. *Landmarks of Mapmaking* p. 130.

업적에서 찾아낸 오류들을 지도제작에 반영시켜 지도학의 발전을 꾀하였고,

둘째는 현재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전부 수집하여 상호 비교한 후 비판적인 분석을 거쳐 경도, 위도의 표시와 함께 당시로서는 가장 현실에 가까운 지도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셋째, 특히 그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新中國지도첩”(Nouvel Atlas de la Chine)은 한국과 중국의 국경문제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학사상에 있어서의 공헌뿐만 아니라 반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한국의 국경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한국학계에서 아직 논의된 적이 없었다.

D'Anville 지도가 지니고 있는 가치는 무엇보다 19 세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지도 이상으로 정한확 지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18 세기의 구라파 모든 지도들이 그것을 토대로 동양지도를 제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될 것이다. 한국에 관한 한 그 原本이 되는 지도를 찾지 못했다는 점이 숙제이지만<sup>28)</sup> 그의 지도의 가장 큰 의의는 그것이 中國 康熙帝의 命에 의한 皇輿全覽圖를 바탕으로 당시 현존하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諸國에 관한 모든 지도와 참고자료를 비판, 검토한 끝에 地形, 山勢, 水系 및 經緯度까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입하였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歷史적으로 볼 때 고구려, 발해때까지 거슬러 올라 가지 않아도 高麗때 우리가 北方에 개척한 九城 가운데 公險嶺은 백두산 동북의 간도지방이고 淸나라가 들어선 후 만주에서 일어난 淸은 백두산의 이북을 聖域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한국과의 국경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康熙帝때부터는 황제의 명에 의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 韓, 淸의 국경지대에 대한 답사를 여러 차례 행하였다<sup>29)</sup>. 그러나 淸太宗이 會盟으로써 국토의 보전을 확약해 준 이래 이른바 大國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淸은 間曠地帶의 존속을 통하여 韓淸의 국경을 유지시켜 주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러시아가 동방 시베리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또 韓國人이 間曠地帶에서 人叢채취를 비롯한 문제 때문에 韓, 淸間의 충돌이 가끔 일어나서 양국간의 국경선 설정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西洋의 科學을 비롯하여 天文, 地理에 깊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康熙帝는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인 Dominique Parrenin의 충고를 따라 1708년에는 거대한 中國 全國土에 대한 實測事業을 벌리게 되었고 Joachim Bouvet와 Jean-Baptiste Régis 등을 비롯한 10여명의 선교사가 현지에서 양성한 中國人들의 도움을 받아 事業을 실행하였다. 측량 방법으로는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西洋諸國에서 새로 도입한 천체관측과 삼각측량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우선 만주지방과 몽고지방을 실측한 후 점차 中國 內部地域을 측량하여 1716년에는 歷史上 前無 後無한 측량작업을 마무리 짓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1717년에 작성된 朝鮮圖이며 그 다음 해 1718년에는 유명한 皇輿全覽圖를 康熙帝에게 바쳤던 것이다. 당시 발행한 지도들은 일반이 볼 수 없는 비장의 지도들로서 불행히도 現在 남아 있지 못하지만 다행히도 41쪽으로 된 銅版圖<sup>30)</sup>는 프랑스로 보내어져서 Du Halde는 그것을 참고로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de l'Empire de la Chine”(1735)를 저술하였고 D'Anville은 Du Halde 저서의 지도 부분을 담당하였다. 그는 그 地圖의 불합리한 요소, 예컨대 中國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북경의 經線을 0°로 한 것등을 수정하여 지도를 제작 Du Halde의 저서에 수록한 후 지도만을 모아서 별도로 “Nouvel Atlas de la Chine, de la Tartarie chinoise, et de Tibet”(1737)을 간행하였다. 특기할 사실은 그가 地圖學에서 처음으로 “韓國全圖”를 別紙로 발간하였던 바 그 地圖는

28) Bricker 에 의하면 D'Anville 의 지도는 당시의 중국고지도와 한국에서 가져간 지도 그리고 실제 측량을 바탕으로 되어 있다.

29) 間島문제에 대한 歷史的 연구는 중앙대학교 30주년 기념논문집에 실린 申基碩 博士의 “간도귀속문제”를 주로 참고하였다.

30) 만주지방은 만주어,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漢字로 표기되었다.

皇輿全覽圖를 充實하게 따른 지도로서 中國쪽에서는 그 권위와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도이고 우리에게만 한국의 독립성과 중국과의 국경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미 Du Halde가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de l’Empire de la Chine”에서 “鳳凰城의 東方에는 朝鮮國의 西部 국경이 있다. 滿洲는 明나라를 침공함에 앞서 朝鮮과 싸워 이를 정복하였는데 그 때에 長柵과 朝鮮과의 國境 사이에 無人의 地帶를 설정할 것을 議定하였다”<sup>31)</sup>고 설명하면서 D’Anville이 제작한 지도로 구체적으로 국경을 표시하였다. 一部 구라파의 地圖學者들은 아마도 Du Halde의 著書를 피상적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인지 淸朝가 세운 長柵을 韓, 淸의 국경으로 표시한 것도 상당수 있다.

D’Anville의 地圖에 의하면 국경은 동북으로 두만강 북쪽의 鹿屯島까지 韓國영토이고 黑山嶺 산맥으로부터 寶宅山을 거쳐 압록강 본류와 봉황성의 中間地點을 통과하여 압록강 河口 북쪽에 이르고 있다.

歷史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1712년 康熙帝의 命으로 韓·淸의 國境을 정하고 백두산에 국경의 경계선 채정 원칙을 정한 비를 세우는 중대한 임무를 위하여 淸은 穆克登을 파견하였다. 만주지방의 烏喇의 總管인 穆克登은 10척의 배에 一行을 태우고 頭道溝로부터 惠山에 이른 후 배에서 내려 步行으로 白頭山으로 향하여 韓國 接伴使 一行과 만나 압록과 두만의 江北의 땅을 淸, 江南을 朝鮮의 경계로 하는 전통적인 국경선 존속을 확인한 후 兩江의 發源地인 분수령에 碑를 세우겠다고 통고하였다. 결국 譯官만을 동반한 채 백두산에 올라 압록강 源泉과 두만강 북쪽 토문강의 江源이 되는 白頭山 남쪽에 碑를 세웠고 淸使 穆克登의 요청대로 木柵과 土石을 쌓아 경계를 표시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西로는 압록강 以北으로 鳳凰城 以南과 東으로는 北間島地域이 우리의 땅으로 中國측으로부터 公的인 확인을 받았던 것은 이제 周

知의 事實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국경설정 以後에도 韓國인이 封禁地域에 無斷히 들어가 淸·韓간의 외교문제가 가끔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충돌이 없었으나 1860년 이후 특히 러시아가 연해주지방을 비롯한 極東地域의 개발을 서두르게 되고 韓國인과 淸人간에 間曠地帶에서의 충돌이 심화되면서 淸朝에서는 강압으로 한국인들을 간도지방에서 축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土門江을 豆滿江이라고 억지를 쓰면서 드디어는 1909년 한국을 강점한 日本과 야합하여 압록강, 두만강 本流의 以北이 中國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본고의 고찰 대상은 淸國에 의하여 확인, 통고되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국경선이 淸國自體에서 地圖化된 후 D’Anville의 地圖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점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문제는 논외로 삼겠으나 D’Anville 지도가 국경설정 원칙과 부합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찰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야 할 것 같다.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국경설정 원칙 자체가 지니고 있는 애매성이다. 碑에 적혀 있는 이른바 “西爲鴨綠東爲豆滿”이라는 碑 自體의 모호성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전체의 韓·淸 국경선이 어떻게 되어야 정확한지 모르게 된다.

국경설정 원칙에 있어서 핵심은 강물의 發源地·分水嶺에 대한 문제이다. 淸使 穆克登 이하 그의 一行들은 韓國측 접반사나 역관과의 대화에서 항상 압록, 두만의 發源地 및 分水嶺을 찾았다. “내 친히 白山에 이르러 鴨綠·豆滿의 二江을 審視함에 다 白山에 根底發源하여 東西兩邊에 分流하다 元來 江北을 大國의 境界로 하고 江南을 朝鮮의 境界로 定한 것은 歷年이 이미 오래니 論議할 것 없고 要는 兩江의 發源地인 分水嶺中에 碑를 세움에 있다. 土門江의 根源으로부터 江流에 따라 내려가 審視하니 數十里에 이르도록 水痕을 볼 수 없고 暗流를 따라 百里에 이르러 비로소 巨水가 나타나서 茂山으로 흐른다. 兩岸에 풀이 적고 地平한 故로 사람들이 邊界임을 알지 못할 것이라 往返하여 境을 넘고

31) Du Halde, 1735, *Description géographique et historique de l’Empire de la Chine*. 제 4권, p. 422.

집을 짓고 路徑이 交雜하기 때문에 이에 接伴使·觀察使와 같이 商議하여 茂山·惠山에 가차운이 물없는 땅에 堅守를 設立하여 衆人으로 하여금 邊界가 있음을 알게 하고 境을 넘는 일이 없도록 하면 皇上의 生民을 軫念하는 至意에 副하고 且 兩國의 邊境에 일이 없을 것이다. 商議를 위하여 咨文照會함 壬辰五月二十八日<sup>32)</sup>

穆克登의 咨文에서도 明白히 볼 수 있지만 그를 동반하였던 譯官의 記錄을 보아도 清朝를 대표하는 그는 받은 命에 따라서 오로지 압록, 두만강으로 流入하는 물줄기의 水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은 그것이 국경선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압록·두만 양강으로 유입되는 물줄기는 압록·두만의 支流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백두산 근방뿐만 아니라 양강의 下流쪽으로 내려 가면서도 그 支流의 水源地 또는 분수령들의 점을 잇는 線이 국경선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들이 백두산 근방의 압록강, 두만강 上流만을 찾은 것은 兩江의 근원지의 上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가장 중요하고 下流로 내려 오면서 兩江의 支流의 上流 水源地와 分水嶺도 그에 준하여 국경선을 이룬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日本의 잘못으로 굳어버린 압록강·두만강의 本流가 국경선이라는 주장은 한 번도 淸國이 한 적이 없었다. 환언하면 그들은 江岸을 찾지 않고 언제나 兩江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줄기가 시작되는 分水嶺을 찾았으며 穆克登이 말한 江南, 江北은 支流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그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康熙帝의 命을 받아 제작한 皇輿全覽圖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중국지도의 표본으로 만든 D'Anville의 地圖인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D'Anville의 地圖는 이와 같은 事實을 事實로서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러한 자료가 역사적인 연구에서 활용되지 못하였는가.

여더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첫째, 연구의 중점을 역사적 기록과 문헌에 두었기 때문에 관점의 초점이 달랐고, 둘째, 당시의 韓國古地圖에서 備邊司에 보관된 지도중에는 압록강, 두만

강 유역에 관한 秘藏의 지도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一部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으나 그 지도에도 명확한 국경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셋째는 中國측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皇輿全覽圖에 국경을 상세하게 표시하였는데 그 후 그 동편이 프랑스에 건너가 D'Anville의 검토를 거친 후 만들어진 중국, 만주전도에 한층 더 과학적으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D'Anville의 지도를 바탕으로 1863년에 胡林翼과 嚴樹森의 大清一統輿圖가 제작되었던 바 한국측에서는 이 지도를 갖고 있지 못하여 국경문제로 대립하였을 때 초기에는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다만 1880년대에 국경분쟁이 일자 당시 이 문제를 책임맡았던 魚允中은 한국측이 소장하고 있는 邊境古地圖와 역사적 事實이 부합된다는 것을 실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나, 150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물흐름에 변화가 있어서 정확한 고증이 힘들었고 어차피 중국측에서 한국에서 손으로 그려 만든 지도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경선을 확정할 의사는 전연 없었기 때문에 한국지도는 증거로 제시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른 바 丁亥勘界談判의 한국측 대표였던 李重夏는 회담에서 “삼가 살피전대 貴國一統地圖中 鴨綠圖們的 地界에 點劃標識이 十分分明하다. 土水의 大圖們江임은 註明함이 確하다[...]. 이것의 的確한 憑據로 하였다. 故로 本官은 누누히 一見할 것을 간청하였으나 貴官等은 한 번도 이를 보이지 않은 故로 本官은 歸京後 北京으로부터 購得하였다. 貴官 등은 말하기를 이것이 市井에서 編한 바 坊本으로 憑信할 바 못된다고 하니 本官은 정말 誘惑 억울함을 말할 수 없다. 이 一統輿圖는 往年 立會調查한 때에 作成한 地圖와 별 차이가 없다. 閣下께서 물노니 一統輿圖中 무엇을 가리켜 믿을 수 없다고 하는가. 一一이 應答하라. 要컨대 今回의 境界 調查에는 弊邦은 삼가 圖們舊界를 지킬 뿐이다. 바라건대, 貴官等은 길이 諒察을 加하여 公平히 일을 辨하라. 가지고 온 總書命令書와 輿圖를

32) 穆克登의 咨文

卍基碩, 問島歸屬문제, 중앙대 30주년 기념 논문집, p. 11.

보이고 公明히 考訂하라”<sup>33)</sup>라고 하면서 地圖를 가지고 論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러시아에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던 북쪽과 동북쪽의 땅을 빼앗긴 중국은 허약한 우리에게만은 강압적으로 대하면서 자기 주장만을 一方的으로 강요하였던 것이다. 이 對話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표들이 국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온갖 지혜와 성의를 다하였고 淸의 地誌 및 地圖까지 연구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두만강 북쪽에만 집중되어 압록강 하류의 만주쪽 영토 즉 압록강 하류로 流入되는 압록강 북쪽 支流의 發源地들을 이은 것이 우리의 국경선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만강 지류쪽에서 두만강 본류가 국경선으로 밀리자 자동적으로 압록강 쪽에서도 본류가 국경선이 되고 말았으니 실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국경선이 처음 논의되던 1700년대의 皇輿全覽圖나 一統輿圖를 토대로 작성된 D’Anville의 중국전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까맣게 모르고 거론조차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학문에 있어서의 낙후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不利益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을 斷的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北方영토에 대한 문제 외에도 D’Anville의 地圖는 일본과의 쟁점대상이 되고 있는 독도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나 그 문제는 東海의 호칭변경 문제와 함께 이미 다룬 바 있기 때문에<sup>34)</sup> 생략하기로 하고 그보다는 18세기말에 西歐人으로서 최초로 우리의 동해안을 탐사하고 人여행기를 남긴 Lapérouse와 그의 해도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Lapérouse는 Hudson 만에서의 英·佛 對決에서 불란서에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 해군사관 출신의 탐험가이다.

Lapérouse가 Boussole號와 Astolabe號를 이끌고 五大洋탐험의 임무를 띠고 출발한 것은 1785년 8월 1일이었다. 前者에는 총 108명, 後者에는 총 911명이 승선하였는데 그 중에는

當代의 이름난 과학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잘 알려진 인물만 소개하자면 地理學者 Bernizet, 醫務隊長 Rollin 박사, 아카데미會員인 天文學者 Lepaute-Dagelet, 物理學者 Lamanon, 植物學者 Collignon 기타 전문 技士들이 多數 있었다. 탐험대의 조직과 준비 및 배물 건조하는 데에 3년이나 걸렸고 탐험대에 들어간 총 경비는 불란서 국가의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의 거액이었다는 사실을 보면 그 규모와 불란서 전체가 이 탐험대에 거는 기대가 어떠한지를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Lapérouse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海軍제독 出身의 海洋學者 Brossard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sup>35)</sup> 혁명전야의 불란서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Lapérouse 탐험단을 출발시킨 것은 첫째, 모피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영국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며, 둘째, 당시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탐험하여 가능하면 새로운 식민지 영토를 확보하며, 셋째, 인도와 캐나다를 영국에 빼앗긴 후 해양국가로서의 이름을 内外에 과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Lapérouse의 야심이 일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의 관심이 그 탐험으로부터 실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한 반면 Lapérouse는 海洋人으로서 우선 영국의 Cook 선장의 대탐험에 비견할 수 있는 탐험을 시도하고자 하였고 한 걸음 나아가 탐험의 수준을 학술적인 면에서 높이고 결과를 종합화하기 위하여 당대에 이름 있고 유능한 학자들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특히 그는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탐험가들의 많은 탐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까지 한 번도 탐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地圖學的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했던 동해, 일본 북부, 캄차카 일대를 정확히 탐사하여 지도화하는 생각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1787년 5월에는 드디어 제주도 근해로 접근하여 제

33) 申基碩, 상계서, p. 43.

34) 韓國日報, 1978. 1~4.

35) De Brossard, 1978, Lapérouse p. 478. (Éd. France Empire).

주도, 남해를 거쳐 동해안쪽을 탐사하다가 동해안의 해안선이 그 당시의 지도와 다른 점을 기록하고는 울릉도를 통과하면서 기상조건이 나빠 지자 독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일본쪽으로 갔다.

## 5. 결 론

이상 중세 이후 18세기까지 서구 地圖에 나타난 한국의 모습을 고찰해 보면서 한국이 늦게 나타나는 이유, 부정확하게 나타난 이유 등을 살펴 보았다. 아울러 한국의 이름이 아랍인에게서 Sila 고려때 Cory로 불리웠고 그것은 동남아 무대에서 아랍의 퇴거 이후 일부 스페인, 포르투갈의 지도에서는 Cory로 並記되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Korea라는 철자는 고려를 Corai라고 발음한 일본식 발음이 붙어, 영어를 통하여 Corée, Corea로 되었음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단지 라틴계통에서는 오늘날까지도 Corée, Corea로 되어 있는 반면 영어에서 Korea로 된 것이 과연 日인들이 Japan의 뒤에 두기 위하여 K로 바꾼 것인지는 더 조사를 하여야 할 것같

다. 물론 [k]음의 대표철자가 라틴계통에서는 C인 데 비하여 영·독에서는 K이긴 하지만 Canada같은 경우는 C인 점을 감안한다면 본래 Corea인 것이 Korea로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한편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도는 서양학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든 지도들이다. 라페르즈도 탐사를 통하여 제주도와 남해안 및 일부의 동해안 이 지도에 잘못 그려진 것을 바로 잡아 유익한 작업을 하였고 일본의 북해도 이북지역을 세계 지도상에 처음으로 확연하게 그려준 이유로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야 하지만 政治地理的으로 는 D'Anville의 지도가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한 의미에서 D'Anville의 지도와 선교사들의 현지 답사 기록을 함께 수록한 Du Halde의 中國帝國誌는 특히 古地圖研究가 과거 속에 묻혀 있는 현실을 현재, 미래에 투영시켜 줌으로서 民族史의 재구성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韓國外語國大)

# An Historical Sketch of Korean Maps Appeared in Early Western Maps

Jong Churl Soh

## *Summary*

This paper aims to find out Korean maps appeared in Western cartographic works, the process of improving western knowledge about Korean maps, and the changing names of Korea through time.

Names of Korea appeared first in Arabic literature as 'Sila' before Portuguese and Spaniards arrived in Asia, but the first map contains name of Korea is Dourado's map in 1568. It shows 'Conray', which is probably misspelled, should read as 'Couray'. The map is kept in Alba's family at Madrid.

Map of Korea appeared in western maps as island first, and then as peninsula in uncertain shapes. La Pérouse's voyage (1785~1789) introduced first Korean coastline surveyed by modern instruments. However, D'Anville's map of Korea appeared in his famous New Atlas of China in 1737, introduced comprehensive and relatively accurate map of Korea as an independent sheet. D'Anville's Map of Korea became a basic source for western maps for long, and it gives many interesting clues about boundaries between Manchuria and Korea with Du Halde's book of Geographic and Historical Descriptions of China in 1735.